일상적인 하나님 깔보기의 메아리

(민14:20~45)

26.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이십 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1.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32.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33.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사십 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34.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사십 일의 하루를 일 년으로 쳐서 그 사십 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35.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일상적인 하나님 깔보기의 메아리>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일상적인 하나님 깔보기의 메아리'
'하나님 깔보기'라는 말이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을 깔볼 수 있겠습니까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깔보면 메아리가 되어서 내게로 되돌아오고 그 증거는 내게 가나안이 없습니다.
23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

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을'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족의 이유가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마음 상태에서 감사가 넘치고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한데, 지금 내가 감사한 마음이 넘치지 않고 기쁘지 않고 더더군다나 만족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깔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깔본 내용이 메아리가 되어서 내게로 되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절대적인 영적 진리요 기준입니다.
'기쁘지 않고 내가 어떤 일과 문제 때문에 걱정이 가득 쌓여서 만족함이 없다'는 것은 '가나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자인데도 가나안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멸시한 그 멸시함과 깔봄이 메아리가 되어서 내게 되돌아왔기 때문에 가나안이 사라져서 기쁨이 없고 만족하지 않고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싸움에 나갈만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가 603,550명이었습니다. 즉 출애굽에서부터는 광야 40년이고, 정탐사건으로부터는 38년 반 정도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603,548명이 다 죽습니다. 603,548명이 38년 반인 14,508일로 하루에 85명씩 죽어갑니다. 20세 이상이나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로 계수된 자들도 있었을 것인데 이들이 죽을 때마다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온 이스라엘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60만 명이 죽어야 했으므로 38년 반 동안에 장사지내는 것이 일이었을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메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메아리'라고 한 것은 메아리는 내가 소리를 지르면 시간차를 두고 산에 부딪혀서 돌아오는데 오늘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7~29절에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는 이 말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라고 하는 메아리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깔보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반응을 싣고 내게 메아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깔봄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접수하시고 그 깔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실려져서 내게로 돌려보내실 때에 가나안이 없어집니다.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

금 이 세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기쁘지 않다고 한다면, 가나안 족속 때문에 가나안을 못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돈 문제나 자식 문제나 건강 문제 때문에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은 이런 문제가 버티고 있는 한 기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가나안 족속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안 주시고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무서운 진노를 발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 할 때에 특별한 희생과 충성과 공경의 마음과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희생과 충성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지만 말라'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것이 업신여기고 깔보는 것인데 그것만이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경외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중요한 점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복지, 약속된 가나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선민이라면 기쁨과 만족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빼앗아가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깔보기입니다.
전세 값이 올라서 무주택자들이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 전세 값이 없어서 우리에게서 기쁨이라는 가나안이 사라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헤쳐 나가기 어려운 세상물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돌에 맞아죽는 상황에서도 가나안은 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앞에서 내가 행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깔보는 것 때문에 그 깔보기가 메아리로 돌아와서 내게서 가나안 복지를 빼앗아가 가버리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실제 삶에서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깔보고 멸시하고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 때문이라고 하지만 돈 문제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깔보고 멸시한다.'라는 것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못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온전히 기쁘지 않고, 사실 감사가 넘치지도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언제 하나님을 깔봤다는 것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끔찍한 말이냐?'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을 깔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것이지 하나님을 깔보지는 않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나타

나는 모든 증거가 하나님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깔본 자들이고, 예수님을 깔봐서 십자가에서 죽인 자들이 선민입니다.
'깔본다.'는 것은 같이 있는 대상 중에서 하나를 더 크게 본다면 자연히 다른 하나는 깔보게 되고 얕잡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가치 있는 대상들 중에 어느 것 하나에 먼저 많이 쏟아 부으면 다른 것은 당연히 업신여기는 것이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시골 노인이 서울에 올라와서 테헤란로의 포스코 건물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안내 데스크의 수위 아저씨에게 무엇을 묻는데 말씀을 드려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때 저쪽에서 회전문이 열리면서 포스코 회장님이 들어오십니다. 노인분이 뭐라고 하든 말든 수위아저씨는 회장님께 가서 인사를 하고 안내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노인 분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것은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인데 '없다와 여긴다.'를 합친 것으로 이게 바로 멸시하는 것입니다.
로비에 회장님과 노인이 함께 있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과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누구에게 쏠리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멸시하게 되어있고 깔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수위 아저씨의 마음속에서 작은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멸시입니다. 작다, 작다 너무 작아서 있는 줄도 모를 정도가 되어버리면 없는 것으로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나안 족속이 같이 있는 가운데 가나안 족속을 크게 본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식의 성적이 안 나와서 살맛이 안 납니다. 짜증과 걱정과 근심불안이 가득해요. 어느 날 자식이 시름시름 앓아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병명을 모른다고 합니다. 자꾸만 자식이 시들시들해져 가는데 이때에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적 문제는 멸시를 당하게 되고 자식의 목숨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게 됩니다. '성적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 대학 못 들어가도 좋고, 중학교 졸업하고 검정고시 봐도 좋으니 제발 살아만다오'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에 성적에 인격이 있다면 목숨 앞에서 멸시당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 상사 앞에서도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직장 상사의 마음에 들려하고 신경 쓸 때에 하나님은 멸시당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항상 멸시당하고 계시는데 일상적으로 멸시를 당하십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사장님 앞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장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사장님을 향한 예의를 갖추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

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도 얼마든지 사장님에 대한 예의는 지킬 수 있습니다. 사장님을 신경 써서 사장님의 마음에 들어서 해고당하지 않고 승진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가나안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시와 명령과 생각과 통찰과 아이디어대로 사장님께 했는데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를 당했더라도 가나안이 찾아옵니다. 사장님을 신경 쓰고 승진했지만 그 직장의 삶은 스트레스로 가득한 지옥이 되는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약속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십자가 생활화는 어떤 것일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과 같고 행정당국과 같은 산헤드린공회에서 행4: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말합니다. 산헤드린공회의 회원에게 예의를 갖춰서 그들의 재판을 받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 했으나 신경 쓰는 것은 그들이 아닙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빌라도가 재판장이라는 권위를 인정하시고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빌라도와 상관없다고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갈 길을 가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생활화를 하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 멸시에 대한 문제와 어떤 관계를 갖습니까? 갈3: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에는 이미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언제 밝히 봅니까?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밝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입니다. 사장님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밝히 보고, 내 사업이 안 됐을 때에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밝히 보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한이 있어도 밝히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 이야기만 합니다. 아그립바 왕은 희미하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이 밝히 보이는데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십자가가 가장 큰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져도 십자가 말고는 마음에서 다 깔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과 로마의 권위를 깔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일 큰 일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를 사도 바울이 깔보게 되는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갈6: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하는데 십자가

가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돈이나 학력과 승진을 자랑할 때에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하는데 십자가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 내 죽음을 죽으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체의 일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보다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만사가 의미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과거에 있었던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 내가 죽는 사건이라고 믿는다면, 사업의 흥망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큰 사건입니까? 십자가가 제일 크기 때문에 '십자가를 밝히 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가운데서도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나의 죽음으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펼쳐지더라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 있어도 그 사건을 깔보고 그 대상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죽는 것이 됩니다. '죽는다.'는 것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 생활화 없이 하나님을 부른다면 이 세상의 사건과 사람들이 마음을 점령해버립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에 세상이 들어와 마음을 점령하게 되고, 내 마음은 세상일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경 쓰게 되는데 이것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알려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의 하나님이고 우상화된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악을 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밤새 기도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자기 최면으로 잘 될 것이라며 잠깐 기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므로 '아마 하나님이 잘해주시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마음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기는 순간 하나님은 또 멸시를 당하십니다. 십자가 없이 부르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체질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5감관으로 접하는 이 세상의 일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고 더 크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있을 때에는 그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을 따라 십자가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유일하게 십자가를 생활화 할 때에만 이 세상의 어떤 일과 어떤 대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십자가 대신에 법궤를 보았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보면서 그의 말씀과 그의 약속과 그의 판단을 믿고 크게 보았습니다. 자기가 보는 것에 대한 자기 판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상적인 하나님의 깔보기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와 가나안을 빼앗긴 자들이 603,548명이었고 단 두 명만이 하나님을 세상보다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암시하는 것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확률이 30만대 1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률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철저한 십자가 생활화가 됨을 통하여 체질적인 하나님 깔보기가 뿌리째 뽑혀짐으로 마음에서 세상 전체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